

2016 역사문화기행

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였다!

대구는 과연 대한민국 보수의 아성이란
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?

반란의 도시

민주주의의 성지 대구

일제 강점기 국채보상운동

1946년 10월 항쟁

4.19혁명의 촉발 계기, 2.28 학생 의거

군사독재의 유산으로
박정희, 박근혜가 중심에 선

보수의 아성 대구

그리고, 일본 자본에 맞서 장기투쟁중인
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자의 도시 구미까지

‘달빛’ 고속도로로 달리며
광주와 대구의 항쟁의 정신을 잇고 역사의 현재를 성찰한다.

- 출발일시** 2016년 5월 28일(토) 오전 8시30분 (광주 도착 오후 6시)
- 출발장소** 첨단 메가박스 버스 정류장 앞
- 참가대상** 조합원 및 가족
- 접수마감** 5월 25일(수) 오후 2시
- 접수처** 각 지회 교선부 또는 문화체육부, 광주전남지부 (062-525-5313)
- 기타** 편안한 복장(모자) 차림, 점심 제공
- 답사안내** 서부원 선생님 (살레시오고 한국사 교사)
- 답사지역** 대구 3.1운동 유적 → 이상화 시인·서상돈 선생 생가 →
대구 약령시 → 경상 감영공원 → 대구 종로초등학교·녹동서원 →
구미공단(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 투쟁 농성장)
※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